

여성義兵 尹熙順의 歌辭 考察

金 文 基*

• 目 次 •

- | | |
|-------------------|---------------------|
| I. 머 리 말 | III. 尹熙順 歌辭의 내용과 특징 |
| II. 尹熙順의 생애와 義兵活動 | IV. 맺 음 말 |

I. 머 리 말

壬·丙 兩亂期와 舊韓末에 의병 항쟁을 주도한 것은 兩班 士大夫요 儒生이었다. 그러나 1894년의 甲午農民戰爭과 1895년 10월의 明聖王后 弑害事件, 11월의 친일 내각에 의한 斷髮令의 강행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어 농민군 대중과 일반 서민들도 의병에 가담하게 되었다. 1905년 乙巳義兵 때에 영해에서 申堧石이 寧陵義兵大將으로 활약함으로써 비로소 平民 義兵將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반 서민들이 의병에 적극 가담하고 평민의병장이 나타나게 되었으나 의병활동은 어디까지나 남자들에게 국한된 일이었고 여자들은 가정내에서 家事에만 종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시대에 畏堂 柳弘錫의 며느리인 尹熙順은 시아버지의 의병항쟁을 至誠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女性 義兵을 조직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女軍이 되었다.¹⁾

그는 특히 무력으로 임금을 괴롭히고 왕후를 시해하는 등 갖은 행패와 국권을 유린하는 왜병들과 왜병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민족반역자와 왜병과 합세하여 의병을 토벌하는 관군에 대해 여성을 대표하여 布告文과 警告文을 보냈을 뿐 아니라 최초로 義兵歌辭를 지어 청년들로 하여금 의병에 출정토록 호소하였고 여성들도 의병에 참여하기를 권유하였다. 그가 왜병 대장과 왜병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동포들에게 포고하고 경고한 산문으로는 <외놈티중보거라> <오롱키들르경고훈드> <외놈압즈비들으> <금수들으 바더보거르> 등의 글이 전하고 있으며 가사로는 <은스름 으병기> <이돌픈 노리> <봉어중> <병정노리> <으병군기> <병정기> <은스름 의병기 노리> <신신티령> 등 9편이 남아 있다.²⁾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한말 의병가사 연구의 일환으로 최초의 여성의병으로

* 慶北大學校 教授

1) 朴容玉, 韓國近代女性運動史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 p.156.

2) 朴漢高 편, 畏堂先生三世錄, 강원일보사, 1983.

서 최초의 의병가사를 지은 윤희순의 의병활동과 가사 작품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의의를 밝혀 보기로 한다.

II. 尹熙順의 생애와 義兵活動

尹熙順은 恒齋 柳濟遠의 妻요 畏堂 柳弘錫의 며느리이다. 그는 1860년(철종 11)에 海州人 尹翼商의 딸로 한성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효성이 지극하며 기개가 빼어났다. 16세 되던 해에 항재에게 시집을 갔다. 그는 媿父를 효성으로 섬기고 조상을 정성으로 받들 뿐 아니라 손님을 지성으로 대접하고 아랫사람을 은애로 거느리며 집안일을 법도에 맞게 처리함으로써 집안이 화목하고 마을이 화평해지므로 시아버지 畏堂선생으로부터 孝婦라 칭찬을 받았다.³⁾

당시 시아버지 유희석은 伯父인 省齋 柳重教와 重菴 金平默을 따라 華西 李恒老에게 수학한 당대의 선비로서 어지러워지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의병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從祖父되는 省齋선생에게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롭게 홀로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게 되었다.⁴⁾

1895년에 명성황후 閔妃가 일본 浪人들에게 시해당하고 전국에 단발령이 내려지자 외당선생은 再從弟 柳麟錫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게 되었다. 외당 선생이 군사를 일으켜 전쟁에 나아가자 윤씨도 따라 나서며 의병을 돕겠다고 간청했으나 시아버지가 한사코 만류하며 “오늘 가는 길은 죽을지 살지 알 수 없으니 너는 조상을 잘 모시고 자손을 충성되게 잘 길러 광복의 날을 기다리도록 하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분부하므로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바라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⁵⁾ 외당선생이 의병에 出征한 후, 윤씨는 산위로 올라 가서 단을 쌓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삼경이 되면 목욕재계하고 정화수를 떠 놓고 전쟁에 나간 시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 달라고 지성을 다하여 祝願을 드리기도 하였다. 축원을 드린지 10달만에 외당선생이 의병에서 돌아오시자 그 때의 반가운 마음과 시아버지의

3) 畏堂先生三世錄(이하 “삼세록”으로 약칭), 恒齋實錄, 行狀, p.191.

4) 윤희순은 그가 親筆로 직접 쓴 一生錄에서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시집을 와보니 시아버님은 홀로 계시고 한티서 살기된니 근심이로라 외당선생끼서는 나로가 어지러운니 근심이로고 하시며 나로가 시고 항재끼서는 성재끼 가서 시고 짝을 이룬 두견식 신시가되드십피 솔주니 흥흥 쓸쓸리 지너오던차 외당끼서는 나로가 어지러운니 근심이로고 하시며 의병을 모집하여 큰뜻을 이루기위히 맘을 잡수시고 하시는데”(외당선생삼세록, 윤씨실록, 일생록, pp.297~298.)

5) “시부모를 충효로 이렇다시 저주굴줄 모루구서 충효인듯 정신니 드러싸온니 어이호오리요 장하기도 호읍고 야속하기도 호읍고 호는 충효로 규중부인니 몸우로 풍두농불노 시오분님을 좇추고드호온니 외당 선생끼서 물려 왈 너가 전쟁의 나로 심수를 오지못하니 주손오기 심쓰고 조상의 심쓰라 하시며 또한 규중여자로 어이노를 따르리요 그러한니 무약기 너가도르오지 못호면 너가 주손들이기 혼게하여 조송님 읍피 심덕글 길러 주도록 호르 호오신니 마지못히서 호으며 우는 관경을 볼치기 참모 보지 못할노르”(윤씨실록, 황갈대소내 족손 모가 성재선생대에 보낸 편지)

고생에 대한 애뜻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열달리 되던날 무사이 도라오셔썸니 반가운 마음 이루드 호오리요 고생하시든
말삼이 성공도 하역고 실패도만년노라 하시며 니가 지극한 정성우로 비러다한니
그 오릿토로 그 고생을 하여 눈니온나 비가온나 그러키 지성이 잇썸썸니 효부열
녀로라 칭찬이 크키하시나 대담하신 아분님이 더 불상하시더라 죄우 하루밤을
주무시고 나가신니 열만나 이통호오리요”⁶⁾

외당 선생은 하루밤을 집에서 머문 후에 다시 의병으로 나갔는데 며칠 뒤에
그 마을에 의병대들이 몰려와 밥을 지어달라고 요구하므로 시아버지를 통하여
의병들의 憂國衷情과 犧牲精神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던 윤씨는 식구들이
먹어야 할 쌀은 물론 마침 춘천 숫장수들이 숫을 사기 위해 갖다 놓은 곡식까지
몽땅 털어 저녁밥을 지어 주고 軍糧으로 주어 보냈으니 그의 女丈夫다움과 救國을
위한 애끓는 情, 그리고 시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모하는 孝心이 얼마나 지극했
는가를 알 수 있다.”⁷⁾

윤씨는 그날 저녁에 마을 안사람들을 모아 놓고 의병돕기에 나서자고 주장
하였더니 반대하는 이도 많았으나 친척을 중심으로 앞장선 결과 모두 동의하게
되어 의병들이 오기만 하면 잘 도와 주게 되었다.⁸⁾

얼마 후에 숫장수가 와서 쌀을 내 놓으라고 심한 행패를 부리자 턱골대, 벌골대,
정문대, 최골대, 의암대, 용문대, 소리대 등 집안들이 힘을 합쳐 숫장수의 쌀은
辨償하게 되었으나 윤씨 자신의 집이 살아갈 길이 막연하였다.⁹⁾ 그러나 윤씨는
의병을 돕는 일에 열성을 다하여 왜병대장에게는 布告文을 보내고 왜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병정들에게 警告文을 띄우는가 하면 안사람들에게는 의병을 적극
적으로 도우자는 가사를 지어 노래부르기도 하였다. 포고문 〈외놈티종보거르〉
에서는 우리 임금과 안사람을 괴롭힌다면 여성들도 의병을 일으키겠다고 경고
하면서 “우리 조선스름 화기면 황소 호롱이니라 우리가 느이놈들 못즈부면
후티이도 못즈불손야”라고 왜병들을 격퇴하고야 만다는 확고한 결의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경고문 〈외놈압즈비들〇〉에서는 왜병의 주구노릇을 하는 병정들과
밀고꾸들에게 “너이는 어너누르 스람인고 너이들른 무슨일노 그드지도 모루는?”
라고 묻고 “후티이 느이 자식 손자까지 디티로 무순낫두로 이누르에서산돈물린야
후티에 너에즈손이 원망은토록 호여르”라고 엄중히 타일렀다. 윤씨는 의병을

6) 삼세록, 尹氏實錄, pp.299~30

7) 朴容玉, 앞의 책, p.151.

8) 삼세록, 윤씨실록, 일생록, pp.299~300.

9) “그믐은 스름을 어득기 밥을 해주노 호연는디 맞침 춘천 숫장수치들리 숫스기위히 갖다논결로
볶은지여 주윈는디 보리쌀 호기믈 줍쌀 호기믈 외당뎡 잡수티는 쓸물뎡 밥히먹고 기져 갖쓰니
무월먹고살며 호던중 장스치기 와서 쌀너노르고 야든니니 힘피도 심호고 호던중 턱골뎡 벌골뎡
정문뎡 최골뎡 의암뎡 용문뎡 소리뎡 모든 지반나 모여서 장스치 쌀를 해주위스나 윤집살기리
무견호와 걱정이로소이다.”(삼세록, 尹氏實錄, 황골대소내 축손의 편지글)

돕는 일도 고생스러웠지만 이렇게 포고문과 경고문을 만들고 가사를 지어 노래 부르도록 하는 것이 고생이고 또한 이런 일을 남자들이 모르도록 표시없이 하자니 근심이 많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¹⁰⁾ 이 당시 윤씨는 왜놈들이 들으면 죽을 의병가사를 지어 실성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밤낮없이 노래를 불러 자식들은 물론 청년들과 새댁들도 감화시켜 노래하게 할 만큼 의병운동에 적극적이었다.

“헌터더군드7 전역이고 느지느 봄 늦읍시 소리를 하는디 부르는 소리7외놈들리 드르면 주글 노리소리만한니 걱정이로소이드 실성하는스름 갓사웁고 하던니 인젠아이들까지도 그러하며 절문청년 식덕까지도 부르고 한니 걱정이 태산니로소이드”¹¹⁾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윤희순은 새댁들과 함께 집도 이웃에 맡기고 아기들도 떼어 둔채 男裝을 하고 의병으로 出征하기도 하였다.¹²⁾

1905년 乙巳勦結이 이루어지자 시아버지 유희석은 다시 동지들을 규합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춘천 진병산 의암소에서 싸움과 흥천 전투에서 패하게 되자 의기 청년 600명과 여성, 노소들이 여우내골에 모여 군사훈련을 다시 실시한 후, 가평 주길리 전투에 나가게 되었다. 이 훈련에 윤씨는 30여 명의 여성들을 동원하여 의병의 뒷바라지도 하고 군사훈련도 함께 하였다.¹³⁾

이 주길리 전투에서 외당은 부상을 입어 제천 친척집에서 치료를 하다가 다시 거의하려고 각 처의 敗殘兵과 청년들을 모으던 중, 습邦이 이루어졌다. 크게 낙담한 외당은 오랑개의 政事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며 가족이 함께 自決할 뜻을 보이자 立軒선생과 아들 恒齋가 죽기보다는 遼東으로 건너가 후일을 기약하자고 권유하여 외당선생이 먼저 떠나고 가족은 家産을 정리해서 뒤에 떠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튿날 왜병들이 별안간 덮쳐서 부인과 아들이 잡히게 되었다. 부인에게 외당 선생이 가신 곳을 대라고 죽치자 부인은 눈을 부릅뜨고 “나라와 겨레의 광복을 위하여 투쟁하시는 아버님의 가신 곳을 설혹 안다고 하더라도 원수인 네놈들에게 말할 수 없다.”고 호통을 치자 왜병들이 아들을 때리면서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바로 말하라고 하자 “어린 자식을 죽인다고 내가 거룩하신 독립투사인 아버님과 자식을 바꿀 줄 아느냐?”고 꾸짖으니 잔인한 왜병들도 감탄하고 돌아갔다.¹⁴⁾ 그 길로 온 가족이 요동으로 건너 갔다.

만리 타국에 가니 말소리부터 달라 서글프고 외로웠으나 마음을 더욱 가다듬으면서 외당 선생을 도와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2년 후인 1913년

10) 삼세록, 윤씨행장, 일생록, p.301.

11) 삼세록, 윤씨행장, 상서, 모 죽순이 성재택에 보낸 편지.

12) 삼세록, 같은 글, pp.294~295.

13) 삼세록, 恒齋實錄, 행장, pp.204~205.

14) 삼세록, 항재실록, 행장, pp.208~209.

12월에 畏堂 선생이 별세하고 남편 恒齋도 그 두해 뒤에 下世하니 분통함이 오장을 찢는 듯하고 亡國의 恨이 더욱 하늘에 닿아 哀痛하기 그지 없었다. 윤씨는 불공대천의 원수를 기어코 갚고야 말겠다고 아들 敦相과 함께 독립투쟁에 몸바치기로 하였다. 돈상은 각지로 다니면서 동지를 모으고 부인은 <의병군가>를 지어 의병들을 격려하고 <안사람의병가>를 지어 여자들을 煽動하여 의병에 나서도록 하였다. 부인은 이렇게 열렬히 光復軍을 돕는 한편 왜군에게 끌려다니는 兵丁들을 몰래 빼내어 비밀굴에 숨겨 두고서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 굶으면서도 이들에게 朝夕을 대어 주어서 모두 광복군이 되도록 하였다.

아들 돈상은 동지를 규합, 獨立團을 만들어 독립운동을 꾀고 弘益團과 합세하여 왜적을 치러다가 왜적의 앞잡이에게 누설되어 실패하였다. 돈상은 그후, 人材養成이 急先務라 여겨 학교를 세워 교육에 힘썼고 軍資金을 모금하여 군사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여자들도 군사훈련을 하여 독립을 위해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고 아들로 하여금 家族部隊를 만들어 군사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¹⁵⁾

어느날 남재구, 허영도 등의 동지가 와서 일본놈들이 안 모양이니 이사를 가자고 하여 여러집 살림을 한 군데 모아 두고 남자들이 시장에 가고 여자들은 저녁준비를 할 때 왜놈과 그 앞잡이들이 집에 불을 질러 모든 살림과 書籍, 祠堂이 모조리 타고 손자, 손녀들이 불속에서 우는 것을 부인이 불속에 뛰어 들어 간신히 구해 내었다. 남자들은 산속에 숨어 있고 여자들은 왜놈에게 끌려 갔다가 석방된 후에 중국인의 주선으로 10여 명의 여자들은 조그마한 집에서 얻어 먹으며 살다가 아들을 만나 더 이상 함께 행동할 수 없으므로 각기 헤어져 살기로 하고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 때 부인은 죽고 싶었으나 광복이 된 후, 자손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죽을 수도 없었다고 한다.¹⁶⁾

그 후, 아들 돈상이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撫順에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어 1935년 7월에 殉國하자 윤씨는 11일 뒤에 하늘에 사무치는 憤痛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손에게 訓戒하는 말¹⁷⁾과 일생록을 남기고 한참고 위대한 일생

15) 가족 중에서 재종질 徽相의 처 韓氏의 총쏘는 솜씨가 특출하여 백발백중 하였고 휘상은 변장하여 연락하는 데 능수였다고 한다.(삼세록, 海岩實錄, pp.376~377.)

16) "이러키 기구히 살즈니 주거지면 죽킨는데 죽조흔니 우리 조선의 7서 주구며 광복이 뿌리와서 조손들리 줄스는 걸 보고도 싶고 참아 주글수도 읍고 주거지지도 온고 하여 원수로도"(삼세록, 윤씨실록, 일생록, p.316.)

17) 윤희순은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 조상님 성묘도 자주 다니며 충효정신을 잊어서는 안된다.
- 사람이 해야 할 일 외에는 하지 마라.
- 시국을 좇아 오름을 알아야 한다.
- 나 위에는 더 큰 분이 나를 보고 있으니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가 하고 말을 해서는 안된다.
- 누가 무엇을 부탁하거든 선뜻 대답을 삼가하라.
- 누가 무엇을 물어 보거든 어렵으로 대답하지 마라.
- 마주 앉아 이야기 할 때 눈동자를 자주 보지 마라.
- 앞 사람이 이야기 할 때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 하라.
- 아랫 사람이 인사한다고 가만이 앉아서 받지 마라.
- 천민이라도 내집을 찾아 오면 반가이 맞아 주고 반가이 보내 주어라.

을 마치고었다.

윤씨는 異國땅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아들 三代가 목숨을 바쳤고 자신도 그렇게 갈망하던 조국 광복도 보지 못하고, 고향 산천에 가서 묻히고 싶어하던 念願도 이루지 못하고 遼東 海城縣 苗官屯山에 묻히고 말았다. 畏堂과 恒齋 두분의 遺骸는 아들 敦相의 효성으로 일제시대에 고향으로 옮겨 왔으나 윤씨의 유해는 올해에 비로소 奉還되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III. 尹熙順 歌辭의 내용과 특징

尹熙順은 〈은스름 으병 7〉 〈익돌픈 노리〉 〈봉어중〉 〈병정노리〉 〈의병군 7 1〉 〈의병군 7 2〉 〈병정 7〉 〈은스름 의병 7 노리〉 〈신신티령〉 등 9편의 의병가사를 지었다. 이 중에서 〈안사람 의병가〉 〈애달픈 노래〉 〈방어장〉 등 3편은 1895년 [乙未年]에 지어진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義兵歌辭로서는 최초의 작품이다.¹⁸⁾ 이 3편의 가사가 1895년에 창작되었다는 근거는 〈방어장〉의 끝에 “을미년 십이월 십구일”이라는 창작일이 분명히 밝혀져 있는 점과 恒齋實錄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을미(一八九五)년 구월에 외당 선생이 국모의원수를 갚고 기울어지는 나라를 붙들기 위하여 강원도 충청도로 돌아다니면서 의병을 모아 비밀히 군사훈련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많았다……그리고 여자들도 나라를위하여 일어나자고 집안일 만하고 문밖출입이 없던당시 여자들에게 이와같은 외침은 크나큰 혁명이 아닐수없다 더구나 남자들도 목숨을 나라에 받치라면 도망가는것이 보통인데 가정부인들에게 이런엄청난 강요를 한것은 여간 큰 여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일이다……부인은 이여자들을 깨우쳐 주기위하여 안사람 의병노래를 지어 모든여자들이 함께 부르게 하였으니 다음과 같다……의병에게 총부리를 대어 그 야말로 골육상간의 참극이 벌여졌다 부인은 크게 한탄하고 애닦은 노래 및 병정가를 부르게 하였으니 다음과 같다”¹⁹⁾

그리고 〈병정노리〉는 1896년 봄에 지었고²⁰⁾ 〈의병군가 1〉 〈의병군가 2〉 〈병

- 남의 말을 입에도 담지 말며 나의 위치를 생각하고 남의 말을 해야 한다.
- 성재선생의 여순혼사편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으니 자주 읽어 보아라.
- 걸음을 걸을 때 발밑을 보고 옮겨 다녀야 한다.
- 모든 정신은 발끝에서부터 머리까지 조심이 있어야 한다.
- 매사는 자신이 알아서 흐르는 시대를 따라 옳은 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여 살아 가길 바란다.

그리고 素望이라 하여 “忠孝愛國精神 子孫萬代保存”이란 유훈을 남겼다.

18) 金文基, 義兵文學의 形成과 투영된 思想 研究, 국어교육연구 제 25집, 1993.

19) 삼세록, 항재실록, 행장, pp.191~196.

20) 작품 끝에 “병신 춘작”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정가) 〈안사람 의병가 노래〉는 1915년경에 지었다.²¹⁾ 또 〈신새타령〉을 1923년 [癸亥年] 봄에 지었다.²²⁾

그러면 歌辭의 內容을 分析한 후에 윤희순 가사의 特徵을 살펴 보기로 한다. 윤희순의 가사는 義兵 參加의 勸誘, 倭兵 앞잡이 대한 曉諭, 義兵의 士氣 振作, 義兵活動의 體驗 吐露 등 4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義兵 參加의 勸誘

의병 참가를 적극 권유한 가사로는 〈안사람 의병가〉와 〈방어장〉 2편이다. 〈안사람 의병가〉는 여성들도 의병활동에 참여하여 남성 의병들을 돕자는 것이고 〈방어장〉은 청년들의 자발적인 義兵 入陣을 촉구한 것이다.

〈안사람 의병가〉는 10행 정도의 짧은 가사인데 4음보격에 다소 어긋나는 곳도 더러 있고 序詞도 없이 하고 싶은 말을 直說的으로 토로하고 있다.

아무리 외놈들이 궤승흔들
우리들도 뭉쳐지면 외놈잡기 쉬울시러
○무리 여주인들 너르스랑 모를손야
○무리 늙여가 유별흔들 너르없이 소용인노
우리도 너기 으병허러 너기보시
의병터를 도와주시
금수이기 붓초피면 외놈시정 밧들손야
우리으병 도와주시

强盛한 왜놈들을 잡으려면 온 민족이 뭉쳐야 한다고 전제하고 여자라고 愛國心이 없으며 남녀가 유별하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없으면 소용이 있겠느냐고 反問하면서 여성들도 의병으로 나가서 義兵隊를 돕자고 선동하고 있다. 왜놈의 政事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의병에 적극 가담해야 하고 의병이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만세 태평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다소 激情的이지만 決意에 찬 言辭로 인하여 說得力과 呼訴力을 지니고 있다.

〈방어장〉은, 왜병은 더욱 강성해 지는데 우리 청년들의 의병 出陣이 不振하자 청년들의 義兵入陣을 강력히 권유한 30행으로 된 가사이다.

21) “의암선생과 남편의 상을 당하게 되니 분통함이 오장을 찢는듯하고 망국의 한이 더욱 하늘에 닿았다 이 불공대천의 원수를 기어코 갚고야 말겠다 하고 아들돈상(敦相)과 함께 독립투쟁에 몸받쳐 나섰다 돈상은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동지를 모으고 부인은 다시 ‘의병군가’를 지어…… 그리고 또 ‘안사람 의병노래’를 지어 여자들을 선동하니 다음과 같다” (삼세록, 항재실록, 행장, pp.209~211.)

22) 작품 끝에 “계희 정월 열닷신날야경”이라고 창작 일시를 밝혀 놓고 있다.

외놈들은 궂승흔티 우리너르읍시 어이솔며
어느고시서 산돌물인?

.....
우리도 몽쳐지면 무슨일인들 못할손야
짐성골은 외놈정스 붓들고서 솔수잇너
짐성근든 왜놈드리 우리를 농낙흔니
우리인들 솔수잇너 이왕중는 목숨이니
으병하드 중는거슨 몇몇헌 주금이런문은
눈치보고 잇드? 중는거슨 기주금이르
빨리너와 으병하시

나라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想起시키고 왜놈을 몰아 내어 나라를 지키고
의병으로 나가 애국하고 충신되자고 強勸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면 모두
죽을 목숨이니 의병에 참가하여 몇몇하게 죽자고 호소하고 있다.

조선으기 청연들이 빨리너와 으병하여보시
은농너도 너와 으병을 도우는데
함몰며 우리청연들리 너를 일코
?문니 잇슬손야 너도 너?고 너도 너?즈
너르읍시 솔수인너 죽드리도 너?보시
외놈들을 쯔버드? 솔를굴고 뼈를?러도
흔니 안 풀리는데 우리 청연들이 ?문이 잇슬손야

특히 “너도 너?고 너도 너?즈 너르읍시 솔수인너 죽드리도 너?보시 외놈들을
쯔버드? 솔를굴고 뼈를?러도 흔니 안 풀리는데”라는 대목에는 윤희순의 왜병에
대한 뼈에 사무친 怨恨과 決死 抗爭의 정신이 뚜렷이 투영되어 있다.

(2) 倭兵의 앞잡이에 대한 曉諭

왜병의 앞잡이를 효유한 가사로는 <애달픈 노래>와 <병정노래>가 있다.
<애달픈 노래>는 12행의 가사로서 관군 병정들이 왜군의 앞잡이가 되어 의병과
싸우는 현실을 慨歎하고 이들의 夢寐함을 나무라면서 의병을 도와 주자고 권
유하고 있다.

익들도드 익들도드 형저근익 싸움이요
부자근익 싸움이요 이런일이 어디인너
우리조선 벅성들리 이러뜨이 어두운?
제인군을 버리고서 늑이인군 섬길손야
우리조선 버리고서 늑이너 섬길손야

.....

제한목숨 아무데나 버릴손야
 낙도낙기 으병하시 으병터를 도와주시
 이노리를 부르면서 도와주시

의병과 병정간의 싸움을 형제간, 부자간의 싸움과 같은 骨肉相殘으로 보고 이를 개탄하면서 남의 임금, 남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병정들에 대한 애달픈 심정을 금할 수 없어 “넉기슴을 두드린이 넉기슴뎌 앓플소리”라고 울부짖고 있다. 끝부분에서 한 목숨을 아무데나 값어치 없게 버리지 말라고 효유하고 있는데 이에서 윤희순의 확고한 人生觀과 투철한 國家觀을 더욱 엿볼 수 있다.

〈병정노래〉도 왜병의 走狗 노릇을 하는 병정들을 覺醒시키기 위해 지은 13행으로 이루어진 가사이다.

우리나라 으병들은 이국으로 뭉쳐쓰니
 고향이 된들 무위시 서러우라
 으리로 중는거슨 티중부이 도리건늘
 주검우로 뭉쳐쓰니 주검으로 충신되즈
 우리나라 좀벌릿긋든 놈들라
 어터기서 솔수업씨 오롱키 좃튼물기
 오롱키를 줍조흔니 너스름을 줍키군나
 죽더티도 서러워 하지마라

관군 병정들을 뿔뿔히 못한 좀벌레로 比喻하면서 “오롱키를 줍조흔니 너스름을 줍키군나 죽더티도 서러워 하지마라”고 하여 동족을 죽일 수 밖에 없는 가슴 아픈 憐憫의 情을 솔직히 토로하고 있다.

(3) 義兵의 士氣 振作

윤희순이 의병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은 가사로는 〈의병군가 1〉 〈의병군가 2〉 〈병정가〉 〈안사람 의병가 노래〉 등 4편이 있는데 모두 軍歌 系統의 가사이다.

군가의 노래말로 알맞도록 모두 5~9행으로 아주 짧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愛國歌類 開化歌辭의 형식과 흡사하다. 그러나 4음보격에 벗어나는 것이 더러 있어 愛國歌類 開化歌辭라고는 할 수 없다. 7.5, 8.5, 8.6조의 3음보격 唱歌 형식은 더욱 아니다. 〈의병군가 1〉은 나라, 임금, 조상 없이는 살 수 없으므로 나라를 찾아야 하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전진하여 왜놈을 잡자는 내용이다.

나라읍시 솔수읍니 나라솔여 소리보시
 인군읍시 솔수읍니 인군솔여 소리보시

조승읍시 솔수읍너 조승솔여 소리보시
 솔수업드 혼튼물고 누르차저 소리보시
 전진하여 외놈줍주 문시문시 외놈줍기 으병문시

〈의병군가 2〉는 병정들에게 ‘나라 없어 서러우니 나라를 찾아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호소하면서 靑年義兵 萬歲를 부르짖어 士氣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극도열읍 병정들여 너집읍시 서러워라
 누르읍시 서러워라 인군섬겨 누르차저
 행복하기 소리보시
 외놈주버 인군습취 꾸러온쳐 우리인군 분을푸시
 우리조선 으병문시 문시 문문치여
 으기청연 으병문시 문문시오

〈병정가〉는 왜병들을 반드시 잡아 “솔을 갈고 뼈를 가러” 조상의 분을 풀고야 말겠다는 왜병에 대한 咀呪와 決然한 意志를 보인 후, “문시문시 으병문시”를 외쳐 의병들의 義氣를 高潮시키고 있다.

우리조선 스릅들은 느이들을 살여보너 주디온고
 분을푸러 보너리라
 느이놈들 오랑키야 너주글줄 모루고서 애완논야
 느이들을 우리티의 못주부면 후티이도 못주부라
 원수갓튼 외놈들여 느이놈들 주버드기
 솔를갈고 뼈를가러 조승넙끼 분을푸시
 우리으병 물러스라 문시문시 으병문시문시 으병문시 문문시오

〈안사람 의병가 노래〉는 남성 의병들이 나라를 찾으려 힘을 쏟고 있으니 여성들도 의복과 버선을 손질해 주고 따뜻하고 아늑하게 보살피 남성 의병들의 뒷바라지를 충분히 해주자고 호소하면서 여성들도 뭉쳐서 나라찾기 운동과 왜놈 잡는 것이 목표임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누르 으병들은 누르찾기 힘쓰는티
 우리들른 무월홀끼 으병들을 도와주시
 너집업는 의병티들 뒷누르질 하여보시
 우리들도 뭉쳐지면 누르찾기 운동이요
 외놈들을 잡는거니 의복보선 손질하여 문져주시
 으병들리 오시거든 따뜻하고 은웁하기 문져주시
 우리조선 은농니들 누르읍시 어이살며
 심을모와 도와주시

문시문시 문문시요 우리오병 문시로도

의병들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지어진 軍歌類의 가사들은 전투의 決意를 다지거나 의병 行進曲의 성격이므로 자연히 직설적이고 煽動的이다. 그리고 끝에는 반드시 “만세만세 의병만세” 또는 “의병만세 만만세”라는 後敍調의 語句로써 勇氣와 士氣를 북돋우고 있다.

(4) 義兵活動의 體驗 吐露

앞의 가사들은 주로 왜병 앞잡이에 대한 警告와 說得, 의병에의 參加 呼訴, 의병들에 대한 士氣를 振作하는, 主義 主張의 가사라면 〈신세타령〉은 만리 타국에서 독립군 의병으로서 겪은 體驗과 所懷를 진솔히 토로한 告白의 歌辭이다.

이 〈신세타령〉은 윤희순의 가사 중에서 가장 긴 54행으로서 異國땅에서 겪은 苦衷과 설움, 의병들의 苦生과 불쌍한 처지, 고향에 가고픈 애달픈 신세 타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슬푸고도 슬푸도도 이내신시 슬푸도도”라고 하여 만리 이국에서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겪게 된 슬픔을 述懷하였다.

슬푸고도 슬푸도도 이내신시 슬푸도도
 이국말리 이내신시 슬푸고도 슬푸도도
 보이는눈 쇠경이요 들리는귀 믹척꾸느
 말하는입 병어리요 슬푸고도 슬플도도
 이너신시 슬푸도도 보이나니 꺾마기르
 우리조선 어디가고 외놈드리 득시흔느
 우리인군 어디가고 외놈디장 활기치느
 우리오병 어디가고 외놈군터 득시흔니
 이너몸이 어이홀고 어딜근들 반겨줄가
 어딜간들 오르홀 7

타국에 가니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한 처지를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에 비유하고 왜놈들과 왜병들만 활개를 치고 다닐 뿐 오라하거나 반겨줄 사람이 없는, 한없이 외롭고 슬픈 情懷를 여실히 그리고 있다.

그리고 의병들이 배가 고파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춥다고 하여 추운 표시를 마음껏 할 수 없는, 내 땅 없는 의병들의 딱한 처지를 敍述하고 나서 暴風 寒雪에 獨立鬪爭을 벌이는 의병들의 慘狀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돌도도 이돌도도 우리오병 불승흔도
 이역말리 찬바람이 발작도도 어름이요
 발갓도도 빙서리르 눈습도도 어름이르

수염무늬 고두루미 눈동자는 불빛처럼

얼음과 白雪을 헤치고 行軍하는 의병들, 눈썹에는 얼음이 맺히고 수염에는 고드름이 달린 悽慘한 의병의 모습에서 憐憫의 情을 뛰어 넘어 敬虔함과 肅然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死後에 孤魂이라도 고향에 묻히고 심은 심정, 타향에서 까마귀나 짐승의 밥이 될지도 모르는 不安感을 切實히 느끼면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목숨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의병들의 壯하고 거룩한 뜻과 함께 자식과 원수를 두고서 죽지도 못하는 애달고 슬픈 신세를 절절이 묘사해 놓고 있다.

나라이른 서름이룬 이렇타시 서러울까
 어느떠는 고향갈까 주군고혼 고향갈까
 꺾막꺾치 밥이될까 어너짐승 밥이될까
 어느스름 문저줄까 나라이른 서름이룬
 흥루슬면 스러꺼늘 어이이리 서러운야

 슬푸고도 슬푸도드 밋친한을 어이홀고
 자식두고 주굴손야 원수두고 주굴손야
 니한목숨 죽는거슨 쇠울수도 잇컨몬는
 물리꺾국 원한혼이 될수업써 서럽꾼나 이니신시
 설푸고도 서럽꾼는 어느떠는 고향가서
 엔몰하고 스러볼고 이돌푸고 이돌도드
 슬푸고도 슬푸도드 이니신시 슬푸도드
 방울방울 눈물리르 밋치는니 혼이로드

이와 같이 〈신세타령〉은 의병생활의 體驗에서 우리나라오는 感懷를 “슬푸고도 슬푸도드”와 “이돌도드 이돌도드”란 語句를 중간중간 反復함으로써 더욱 절실한 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으며 “방울방울 눈물리르 밋치는니 혼이로드”로 끝을 맺어 의병활동으로 점철된 타국에서의 삶이 눈물과 한의 세월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다음으로 尹熙順 歌辭의 特徵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윤희순의 가사는 最初의 義兵歌辭이고²³⁾ 최초의 女性義兵이 지은 의병 가사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윤희순의 시아버지 柳弘錫의 〈告兵丁歌辭〉가 최초의 의병가사로 알려져 왔으나²⁴⁾ 윤희순의 가사 중에서 〈방어장〉 〈안사람 의병가〉 〈애달픈 노래〉는 〈告兵丁歌辭〉보다 1년 전에 지어진 것임이 판명되었다. 1896년에 윤희순은 〈병정노래〉를 지었는데 이때 畏堂 선생도 〈告兵丁歌辭〉를 지었던 것이다.²⁵⁾ 1896년에는 관동창의군 의병대장 閔龍鎬가 의병가사 〈回心歌〉를 또 짓

23) 金文基, 앞의 논문 참조.

24) 鄭在鎬, 告兵丁歌辭攷, 한국가사문학론, 집문당, p.216.

25) 이때 외당선생도 ‘고병정가’를 지어 관군을 효유하였으니 이는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고 근심을 하는 정신이 구부가 하나로 통하였던 것이다.(삼세록, 恒齋實錄, 행장, p.198.)

게 되었으나 그후 한동안 공백 상태를 유지하다가 1907년에 가서야 山南義陣大將 鄭鏞基가 〈勸世歌〉를 짓고 李錫庸이 〈檄衆歌〉를 지어 의병가사의 脈을 잇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全垂鏞, 禹德淳, 申泰植, 趙愛泳 등이 의병가사를 창작했으나 조애영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 의병들이다. 윤희순 가사는 이렇게 최초의 여성 의병에 의하여 지어진 최초의 의병가사란 文學史的 意義가 있다.

둘째, 〈신세타령〉은 의병활동의 구체적인 체험을 생생히 그린 작품이라는 점이다. 의병가사들은 대개 왜병의 橫暴와 병정들을 曉諭하거나 의병 참가를 권유하는 내용이 많은데 申泰植의 〈倡義歌〉와 함께 이 〈신세타령〉은 독립 투쟁에 직접 가담하여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心懷를 토로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셋째, 윤희순 가사는 노래 부를 목적으로 지었고 실제로 노래 불렀다는 점이다. 〈신세타령〉을 제외하고는 가사가 매우 짧고 語句의 反復과 並列이라는 表現上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군가류의 가사는 이러한 특징을 더욱 잘 보여 주고 있다. 어구의 반복과 병렬 구조는 啓蒙과 說得에 매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노래말로서 暗記하기 쉬운 장점도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윤희순의 가사는 창작 목적에 아주 적합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 이 의병가사들을 노래 불렀다는 사실은 다음의 기록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부인은 이 여자들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안사람 의병노래를 지어 모든 여자들
함께 부르게 하였으니……부인은 크게 한탄하고 애닦은 노래 및 병정가를 지어
부르게 하였으니”²⁶⁾

“헌터대군드느 전역이고 느지느 봄늦읍시 소리를 흐는터 부르는 소리? 외놈들리
드르면 주글 노릿소리몬한니 걱정이로소이드 실성흐는스름갓사움고 하던니 인젠
아이들까지도 그러하며 절문청년 시덕까지도 부르고 하니 걱정이 태산니로소이드”²⁷⁾

그리고 근자에 윤희순의 가사는 의병창의가(1), 의병노래(2), 안사람 의병노래(1), 안사람 의병노래(2), 의병군가, 애달픈 노래, 신세타령 등으로 작곡된 바도 있다.²⁸⁾

윤희순 가사는 律格이 다소 흐트러지고 音數律이 고르지 못한 바도 있으나 漢字 語句 대신에 순수 우리말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親近感과 眞率한 맛을 느끼게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의병가사들은 주로 開化期에 창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開化歌辭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전통적인 古典歌辭의 형식을 이어받고 있는데 비해 윤희순의 가사는 개화가사, 그 중에서도 愛國歌類 開化歌辭의 형

26) 삼세록, 향재실록, 행장, pp.194~196.

27) 삼세록, 윤씨실록, 모 족손의 글, p.294.

28) 光復會 江原道支部, 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Ⅰ), pp.617~628.

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하겠다. 일반 의병 대중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달래기 위해서는 당시에 유행하는 유형이 적합했을 것이고 대중을 깊이 感化시키고 啓蒙시키기 위해서는 개화가사적 표현 방식이 적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IV. 맺 음 말

지금까지 畏堂 柳弘錫의 며느리며 恒齋 柳濟遠의 아내인 尹熙順의 생애와 의병활동, 그가 지은 의병가사 9편에 대한 내용과 작품의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앞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윤희순은 외당선생의 의병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바라지 한 孝婦였고 몸소 나라를 위해 최초의 女性義兵이 되어 활동한 愛國志士였다. 9편의 가사를 지어 의병에 나갈 것을 호소하였고 병정들에게는 왜병의 앞잡이 노릇을 하지 말도록 曉諭했으며 여성들에게는 〈안사람 의병가〉와 같은 가사를 지어 노래부르게 함으로써 여성들도 의병대에 가입하여 의병운동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그가 지은 가사 중에서 〈안사람 의병가〉와 〈방어장〉은 義兵 參加를 권유한 것이고 〈애달픈 노래〉와 〈병정노래〉는 왜병 앞잡이들을 曉諭한 것이며 〈의병군가 1〉 〈의병군가 2〉 〈병정가〉 〈안사람 의병가 노래〉 등은 의병의 士氣를 振作키 위해 지은 것이고 〈신세타령〉은 중국으로 망명, 獨立軍 義兵으로서의 體驗과 所懷를 읊은 것이다.

그의 가사는 最初의 義兵歌辭일 뿐 아니라 最初의 女性義兵이 지은 가사라는 문학사적 의의와 함께 〈신세타령〉의 경우는 義兵活動의 體驗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慘憺한 심회를 토로한 가사라는 점과 읽거나 吟詠을 위한 가사가 아니라 노래부르기 위해 지은 가사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그리고 그의 가사는 형식적으로 다소 다듬어지지 못해 거친 감은 있으나 漢字 語句 대신 순수 우리 말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眞率한 맛과 親近感을 느끼게 하며 다른 의병가사와는 달리 대중들을 感化시키고 啓蒙하는 데 적합한 開化歌辭 형식을 취하고 있음도 지적하였다.

〈歌辭 原文〉

은스름 으병가

아무리 외놈들이 궤승헌들
우리들도 몽쳐지면 외놈잡기 쉬울시르
우물리 여주인들 누르스름 모를손야

우리 늠여가 유별흔들 나르없이 소용인나
 우리도 나가 으병하러 나가보시
 의병티를 도와주시
 금수익기 붓초피면 외놈시정 밧들손야
 우리으병 도와주시
 우리나르 성공하면 우리나르 문시로다
 우리 은스름 문문시로다

이돌픈 노리

이돌도다 이돌도다 형지근의 쓰움이요
 부자근의 쓰움이요 이런일이 어디인나
 우리조선 빅성들리 이러따이 어두운나
 제인군을 버리고서 늠이인군 섬길손야
 우리조선 버리고서 늠이나르 섬길손야
 이돌도다 이돌도다 우리조선 이돌도다
 조기처를 버리고서 늠이처를 스롱흔니
 분흔모음 볼수업써 나가슴을 두드린이
 나가슴문 앗플소르
 제흔목숨 으무디는 버릴손야
 나도나가 으병하시 으병티를 도와주시
 이노리를 부르면서 도와주시

윤희순 작

봉 어 중

우리조선 청년들으 으병하러 나가보시
 으병하여 나르찾조
 외놈들은 궁승흔티 우리나르읍시 어이솔며
 어느고식서 산든물인나
 원수갓튼 외놈들을 모러니여 우리집을 직켜가시
 우리인군 세도읍써 외놈들리 궁승흔니
 빨리노와 으병하고 으병하여 이국하고 충신되조
 우리조선스름 농락하며 안스름 농락하고
 민바를 스리흔니 우리인들 솔수인나
 빨리노와 으병하시
 우리도 문쳐지면 무슨일인들 못할손야

짐성굴은 외놈정수 밋들고서 솔수잇노
 짐성구든 왜놈드리 우리를 농낙흔니
 우리인들 솔수잇노 이왕중는 목숨이니
 으병하드 중는거슨 떳떳헌 주금이런문은
 눈치보고 잇드기 중는거슨 기주금이랴
 뿌리노와 으병하시
 국도위서 천지기 무너지는뎡 으병을하는디
 기문이 보고문 잇쓸손야
 노도노기 으병을하여 노르착고 분을푸시
 혼번 죽더리도 떳떳하기 주거보시
 조선으기 청연들우 뿌리노와 으병하여보시
 은농너도 노와 으병을 도우는데
 함물며 우리청연들리 노르를 일코
 기문니 잇쓸손야 너도노기고 노도노기즈
 노르읍시 솔수인노 죽더리도 노기보시
 외놈들을 주버드기 솔를굴고 뼈를기러도
 한니 안 풀리는데 우리 청연들이 기문이 잇쓸손야
 노기보시 으병하러 노기보시
 을미년 십이월 십구일 윤희순

병정노리

우리노르 으병들은 이국으로 몽쳐쓴니
 고힌이 된들 무위시 서러우랴
 으리로 중는거슨 티중부이 도리건늘
 주검우로 몽쳐쓴니 주검으로 충신되즈
 우리노르 좀벌리구든 놈들르
 어디기서 솔수업싸 오롱키 좃튼물기
 오롱키를 좁즈흔니 너스름을 좁키군나
 죽더리도 서러워 하지마르
 우리 으병들은 금수를 좁는거시드
 우리 으병들은 주거서르도 느으기
 복수를 흘커시드
 그리올고 우리인군을 괴로피지 마르
 원수 오랑키야

병신 춘죽 윤희순

으병군 7(1)

누룩읍시 술수읍네 누룩술여 스러보시
 인군읍시 술수읍네 인군술여 스러보시
 조송읍시 술수읍네 조송술여 스러보시
 술수업드 혼튼물고 누룩차저 스러보시
 전진하여 외놈줍조 문식만시 외놈줍기 으병문식

으병군 7(2)

국도열읍 병정들오 니집읍시 서러워라
 누룩읍시 서러워라 인군섬겨 누룩차저
 행복하기 스러보시
 외놈주버 인군읍피 꾸러은처 우리인군 분을푸시
 우리조선 으병문식 문식 문문식여
 으기청연 으병문식 문문식요

병 정 7

우리조선 스름들은 느이들을
 살여보네 주디은고 분을푸러 보네리라
 느이놈들 오랑키야 너주글줄 모루고서 왜완는야
 느이들을 우리티의 못주부면 후티이도 못주부라
 원수갓튼 외놈들오 느이놈들 주버드기
 술를갈고 뼈를기러 조송넘끼 분을푸시
 우리으병 물너스라 문식문식 으병문식문식 으병문식 문문식요

은스름 으병가 노리

우리누룩 으병들은 누룩찾기 힘쓰는티
 우리들른 무월홀끼 으병들을 도와주시
 니집업는 으병티들 뒷부르질 하여보시
 우리들도 뭉쳐지면 누룩찾기 운동이요
 외놈들을 잡는거니 의복버선 손질하여 문져주시
 으병들리 오시거든 따듯하고 은옥하기 문져주시
 우리조선 은농너들 누룩읍시 어이살며
 심을모와 도와주시
 문식문식 문문식요 우리으병 문식로낙

윤희순 작

자주 일거보고 외워두고 향여라

신시특령

슬푸고도 슬푸도드 이내신시 슬푸도드
 이국말리 이내신시 슬푸고도 슬푸도드
 보이는눈 쇠경이요 들리는귀 막척꾸느
 말하는입 병어리요 슬푸고도 슬플도드
 이너신시 슬푸도드 보이나니 꺾마기르
 우리조선 어디고 외놈드리 득시하느
 우리인군 어디고 외놈디장 활기치느
 우리으병 어디고 외놈군터 득시하니
 이너몸이 어이홀고 어덜근들 분겨줄가
 어덜간들 오르홀고 7는고시 니집이요
 7는고시 니똥이르 슬푸고도 슬푸도드
 이너몸도 슬푸런민 우리으병 불승하드
 7는고시 니똥이요 7는고시 니집이르
 비곱푼들 머거불고 춤드흔들 춤드홀고
 니똥음는 서럽이른 이럿타시 서러울까
 인군엄는 서럽이른 어는노르 분겨줄고
 가는고시 서름이요 불작마드 7시로드
 충신드른 고승하고 역적드른 죽건민는
 충신드를 고승식겨 어이이리 하진물고
 익돌도드 익돌도드 우리으병 불승하드
 이역말리 찬브롬이 발작마드 어름이요
 발꽃마드 빅서리르 눈습마드 어름이르
 수염마드 고두르미 눈동조는 불빛치르
 부모쳐조 떳쳐녹 나르찾조 향는으병
 불승하고 불승하드 물을이른 기러기고
 물을보고 차져고니 말근물이 흑통이요
 까마기고 안조꾸느 슬푸고도 슬푸도드
 이너신시 슬푸도드 이너몸도 곱든얼굴
 주름소리 되엿서르 어이할고 익돌도드
 후련으느 고향성묘 절히볼까 향는거시
 주름소리 되여고니 불승할스 이너신시
 나라이른 서름이른 이럿타시 서러울까

어느떠느 고향갈까 주군고혼 고향갈까
 ㄱ막ㄱ치 밥이될까 어너짐승 밥이될까
 어느스름 문저줄까 나라이른 서름이른
 하루술면 스통키늘 어이이리 서러운야
 들도음는 목숨한느 나라차짜 흥느으병
 장흥기도 장흥도드 이역말리 ㅌ국따이
 남겨둔건 눈물리르 슬푸고도 슬푸도드
 우리으병 슬푸도드 이너몸도 슬푸도드
 이렇ㅌ시 슬플손야 우리본들 소용읍고
 ㄱ슴속문 읍피지네 엄동설안 촌브몹이
 잠을즌들 잘수인나 동쪽흥늘 발겨진나
 조석꺼리 걱정이르 이리흥여 하루스리
 슬 ㅌ하니 밋친거시 외눔이르
 어리서근 빅성드른 외눔압꺾 종이되여
 저주굴줄 모루고서 외눔종이 되역꾸느
 슬푸고도 슬푸도드 밋친한을 어이홀고
 자식두고 주굴손야 원수두고 주굴손야
 니한목숨 죽는거슨 쇠울수도 잇컨문는
 물리ㅌ국 원한흔이 될수업써 서럽꾼나 이너신시
 설푸고도 서럽꾼느 어느떠느 고향ㅌ서
 엔물하고 스통볼고 이돌푸고 이돌도드
 슬푸고도 슬푸도드 이너신시 슬푸도드
 방울방울 눈물리르 밋치는니 흥이로드
 개히 정월 열닷신날 야경 신시ㅌ평글